

IV.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1.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2. 동학교조 신원운동

IV.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1.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1) 개항 이후 미곡수출의 증대와 지주경영의 강화

1876년 우리 나라가 경험한 개항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세계 후진 제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개항은 이러한 세계사적 보편성과 더불어 한국사적 특수성도 지닌 것이었다. 한국사적 특수성은 산업혁명도 달성하지 못한 일본에 의해 개항됐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歐美선진국가에서 직물류의 자본제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에 대한 개항은 일본에 대한 종속만이 아닌, 구미선진국가를 중심국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 시장체제에의 일본을 매개로 한 종속이었던 것이다.¹⁾ 따라서 개항을 계기로 우리 나라는 후진국가인 일본과 청나라의 압력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압력을 이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자본주의 발달이 미숙한 일본과 청에 의해 가해진 외압은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외압을 통해 관철되는 원시적 축적형 외압이었다.²⁾

이러한 이중의 외압은 구체적으로 일본과 청을 비롯한 구미열강과의 불평등조약 체결로 구체화되었다. 朝日修好條約에서 관세자주권의 상실, 일본화폐의 유통권 허용, 곡물수출의 허용이 이루어졌고, 1882년 朝美修好條約·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과 그 이듬해 수정체결된 朝英條約을 계기로 서울, 양화

1) 정창렬,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的 性格〉(《韓國民族主義論》, 창작과 비평사, 1982).

2) 梶村秀樹,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帝國主義體制로의 이행〉(《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진의 개방과 내지통상권이 허용됨으로써 불평등조약체제하의 우리 나라의 시장은 서울은 물론 내륙지방까지 외국자본에 전면 개방되었던 것이다.³⁾

이와 같은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은 미숙하나마 국내적 분업체제에 의해 형성되었던 종전의 상품생산과 유통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변화는 일본에 대한 미곡유출로 야기된 농업환경의 변화였다. 개항 이전 조선사회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농업에서의 상품생산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농민적 상품화폐경제도 확대되는 추세였다. 특히 지주경영은 19세기 중반 이후 광범위한 농민항쟁으로 말미암아 정체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곡물수출의 증대와 이로 말미암은 미곡가격의 상승은 위기에 처한 지주제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천의 개항장을 끼고 있는 강화지역의 지주층들은 미곡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토지에 투자하여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⁴⁾ 호남지역에서도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포구와 내륙장시로 연결되는 시장권을 통하여 미곡의 상품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주제가 발전하였다.⁵⁾ 지주층은 직영지의 확대, 소작경영의 강화, 그리고 精米를 통한 상품화과정을 직접 장악하는 방식으로 지주제를 강화하였다. 지주의 직영지경영은 신분적 관계에서 벗어난 노비·雇工·挾戶層 혹은 임노동층을 노동력으로 동원하였으며, 소작지경영에서도 빈번한 作人교체와 마름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해 지대수입을 증대시켰다. 지주층은 종전과 달리 증대된 소작료 등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또는 고리대나 상업투자를 통해 화폐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를 다시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대규모 토지를 집적하여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작농민층은 지주층의 직영지 확대와 소작경영강화로 인해 점차 몰락하여 갔다. 차지규모도 10두락 내지 5두락 정도로 열악해졌으며, 소작권의

3) 김경태, 〈丙子開港과 不平等條約關係의 構造〉(《梨大史苑》 11, 1973).

4) 김용섭, 〈江華島 金氏家の 秋收記를 통해서 본 地主經營〉(《東亞文化》 11, 1972).

홍성찬, 〈韓末 日帝下の 地主制研究—江華 洪氏家の 秋收記와 帳冊分析을 중심으로—〉(《韓國史研究》 33, 1981).

5) 왕현종, 〈19세기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찾은 이동으로 안정적인 생계마저도 위협받았던 것이다.

한편 미곡수출로 인해 미곡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기선 등의 근대적 운송 수단의 도입을 기반으로 사회적 분업이 발전하면서 상업적 농업은 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농경영도 성장하였다. 부농경영의 성장으로 농촌의 소빈농층들은 농업경영에서 점차 驅逐되고 임노동자로 몰락되어 갔다.⁶⁾ 그러나 부농경영의 성장은 지주제 강화와 대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농민전쟁 직전에 이르러서는 상농층, 특히 부농의 경영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곡물수출은 곡물의 상품화를 촉진하면서 경작면적의 증대와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부농성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농민정리에서의 잉여는 대부분 외국상인과 지주층에 의해 수탈당했기 때문에 결국 부농경영도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⁷⁾

이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편입으로 결과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농촌사회의 급속한 분해, 재편성을 초래하였다. 지주층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지만, 소빈농층은 시장관계로의 강제적 편입에 따라 농민적 잉여의 유흡을 강요당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몰락하여 갔다. 지주적 상품생산은 성장하고 농민적 상품생산은 쇠퇴하였다. 이렇듯 세계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강제적 편입은 민족적 모순 뿐만 아니라 봉건적 생산관계인 지주—소작인간의 모순도 심화시켰던 것이다.

6) 이윤갑, <개항~1894년 농민적 상품생산의 발전과 갑오농민전쟁—경북지역의 농업변동을 중심으로—> (《계명사학》 2, 1991).

7) 하원호, <개항후의 곡가변동에 대하여(1876~1894)> (《이우성교수정년논총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하)》, 창작파비평사, 1990). 개항 이후 부농경영의 추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대체로 미곡상품화의 진전에 따른 부농경영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가능성이 농민전쟁기까지 지속된다는 견해와 1890년을 기점으로 부농성장이 억제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농민전쟁의 주제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의 하나이다. 즉 1890년대를 기점으로 부농성장이 저지, 억제되고 있다는 하원호의 입장은 농민전쟁의 참여집단으로 부농층을 상정하는 반면, 부농성장이 농민전쟁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는 이윤갑의 견해는 부농을 외세와 봉건지배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은 농민전쟁기에 소빈농층의 공격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농성장주의에 대한 논란은 하원호, 《韓國近代經濟史研究》(신서원, 1998) 참조.

2) 일·청상의 침투와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의 창출

개항 이후 국내적 분업의 발달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의 확대
로 상품유통경제도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품유통경제의 성장은 조선 후기 이
래 성장하던 농민적 상품화폐경제가 활성화된 결과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상
품유통구조가 새로 창출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는
조선의 시장을 제국주의 국가의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 재편하는 과정에
서 창출되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1882년 漢城開棧權과 내지통상권의 허용
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척한 상인들은 일본 상인과 청국 상
인들이었다. 이들은 영국제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개무역을 전개했는데,
이들의 무역은 국내의 물가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를 이용한 기만적인
약탈무역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⁸⁾ 이들은 중개무역에서 나아가 시전상인
의 전매상품인 백목면·명태 등 국내물품까지 취급하였으며, 기선과 같은 근
대적 수송수단을 매개로 조선의 연안유통권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내륙장
시 시장권까지 침투하여 국내 선상들의 취급품목인 북어·다시마 등의 상권
에 침투하기도 하였다.⁹⁾ 청과 일상은 수출입품만 아니라 국산품의 유통과정
까지 침투해 선상과 행상, 시전상인 등 조선상인의 상권을 침탈하면서 제국
주의적 상품유통구조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일상은 국내 상인
보다는 취급상품이 유사한 청·일상인 사이에 훨씬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1885년에서 1894년까지의 무역추이를 보면 절대액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액이
높았지만, 청상은 주로 수출무역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상은 자본재상품의 수
출과 더불어 미국수입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와의 교역에서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일본과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¹⁰⁾ 이러
한 것은 일본상인에게 있어 조선의 시장이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
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원료공급지로서 역할이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

8) 하원호, 《韓國近代經濟史研究》(신서원, 1998) 참조.

9) 나예자,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국학자료원, 1998).

10) 吉野誠,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1975).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는 1880년 1월 원산항, 1883년 1월 인천항의 개항을 계기로 나타난 개항장 중심의 유통권 형성으로 구조화되었다. 개항장 중심의 유통권도 제국주의적 유통구조의 확대에 따라 변동하였다. 1890년대를 기점으로 곡물수출의 중심지가 종전의 부산항에서 인천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인천이 서울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서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가 전통적인 서울중심의 시장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¹¹⁾

국내에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상인들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의 특권상인이었던 어물전이나 백목전 등의 시전상인은 외국상인이 서울에 직접 점포를 설치하여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자 외국상인의 점포철수를 요구하는 동맹철시를 시도하였으며,¹²⁾ 선박을 통해 전국의 해상유통권을 장악하여 조선 후기 강력한 상인으로 성장하였던 경강상인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권을 유지했지만 일본기선의 세곡운송으로 타격을 입었다. 다만 개성상인과 평양상인들은 종래의 상업조직을 이용해 활동영역을 수출입 유통업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서울 이북지방에서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¹³⁾ 또한 지방 포구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포구주인이나 여각, 객주층들은 외국상인들이 근대적 기선을 이용하여 포구시장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들 상인에 종속되면서 제국주의적 상품화폐경제에 기생하는 층으로 전락하여 갔다.¹⁴⁾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권의 핵심인 개항장에는 개항장 객주가 성장하였다. 객주는 원래 상품유통을 중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봉건권력과 결탁하여 독점과 특권을 누렸던 상인이었는데, 개항장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은 상회·상의소 등의 객주조합을 결성하여 정부에 대해 상업세를 부담하는 대가로 특권상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1880년대 말부터 외국상인의 내지

11) 이현창, 《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대한 연구》(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12)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시위투쟁〉(《韓國史研究》 67, 1989).

13) 이병천, 《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14)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發達〉(《韓國史論》 12, 1985).

행상이 활발해지면서 개항장 객주의 상권도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객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항에 개항장의 상품유통을 독점하는 25객주 전관제를 실시하였지만 외국공사의 항의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25객주 전관제는 곧 철폐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의 창출과정에서 시전상인이나 경장상인 등 전통적 대상인의 상권은 점차 위축되었고, 포구시장권을 장악한 객주·여각층들은 이들 외국상인의 하부에 기생하는 상인층으로 전락하였다. 다만 내륙 장시시장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개성상인들은 외국상인과 경쟁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상권을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개항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농민경리도 본격적으로 화폐경제에 편입되고 있었다. 예컨대 1876~1894년간 조선에서 소비된 면포의 반 정도는 지역내에서 자급하고, 나머지 반 정도를 자본제상품이나 토착면포의 형태로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완제품을 구입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 의류인 면포의 상품화율이 높았던 것이다. 이처럼 상품화폐경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화폐유통량 역시 확대되고 있었다. 정부는 화폐유통량의 증대와 재정악화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1883년부터 명목가치는 5배이나 실질가치는 2~3배에 불과한 當五錢을 발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은 당오전 유통지역과 당일전 유통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당오전 유통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황해도·충청도의 대부분지역·강원도 연해지방 등에서 통용되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엽전인 당일전이 통용되었다. 한편 1891년부터는 當一錢 가치의 1/3에 불과한 平壤錢이 발행되었다. 이 평양전은 당일전 유통권인 원산·부산 등지까지 침투하여 당일전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와 같은 악화남발로 인하여 1892년경에는 당일전·당오전·평양전이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게 되었다. 엽전시세 역시 1883년부터 1893년까지의 10년 사이에 3/5수준으로 폭락하였다. 특히 개항 이후 일본화폐의 유통권이 인정됨으로써 개항장을 중심으로 화폐유통권이 재편되었고, 나아가 일본화폐에 의한 조선화폐가 평가되는 엽전시세도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출곡물가격을 엽전으로 지급하던 일본상인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던 반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물가가 폭등

15) 한우근,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일조각, 1970).

함으로써 곡물을 구입하여 생계를 해결하던 도시와 농촌 임노동자, 하급군인, 관리 등의 생계가 곤란해졌으며 정부물자를 조달하는 공인충도 몰락위기에 처하였다. 정부의 악화남발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하층민중의 생계를 압박하고 일본화폐의 유통확대로 일본금융자본에 대한 조선상인의 종속을 심화시켰던 것이다.¹⁶⁾ 봉건적 상업체제 아래서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가 창출되면서 소상공인과 소상공생산자의 경제적 성장은 저지, 억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품화폐경제는 봉건지배층의 수탈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민족적 모순 뿐만 아니라 봉건적 모순도 더욱 격화시켰던 것이다.

3) 부세운영의 변화와 농민몰락의 심화

조선 후기 부세제도는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田政·軍政·還政이라는 三政體制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삼정체제는 지주제, 신분제, 군현제와 현물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정에서의 比摠制, 군정에서의 軍摠制, 환곡에서의 還摠制 등의 군현단위의 총액제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¹⁷⁾ 이러한 총액제적 부세운영은 국가가 토지와 인민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군현단위로 미리 정해진 수취총액을 담세자의 증감과 관계없이 공동부담케하는 제도였다. 신분제의 변동과 농민층 분해에 따라 담세자가 줄어 들고 담세능력이 약화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중앙정부가 군현단위로 일정한 액수의 조세량을 미리 정해 줌으로써 조세수취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총액제적 부세운영은 조세수취업무를 군현의 수령과 향촌 지배세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호보장적 관계속에서 농민에 대한 무제한적 수탈이 가능하였다. 때문에 부농이나 서민 지주들은 신분상승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에서 면제되었고, 이들이 부담해

16) 도면회, <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1894년 동학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17) 김용섭, <朝鮮後期 賦稅制度 釐正策>(《증보판 韓國近代農業史研究 상》, 일조각, 1988).

야 할 조세는 몰락해 가던 빈농층에게 전가되어 조세불균이 심화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하층농민들도 더 이상 가혹한 조세수탈을 감내할 수 없어서 대부분 율리와 도망의 방법으로 향촌사회를 떠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현의 수령들도 이들에게 무한정의 수탈을 감행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군현에서는 군역에서의 洞布制·軍役田과 환곡에서의 里還·結還 등 면리단위의 공동납 관행으로 할당된 조세를 마련하고 있었다.¹⁸⁾ 이와 같은 공동납 관행으로도 부족한 군포와 환곡 등은 대부분 토지에 부과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대부분의 조세는 地稅化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지세화는 신분제의 붕괴와 함께 토지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향촌단위에서 신분제에 의거한 조세운영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⁹⁾

이와 더불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반영하여 조세의 금납지역도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大同의 布木 징수지역은 19세기 중반에 가면 대부분 화폐납으로 전환되었고 군포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代錢納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의 기초는 현물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금납화가 공인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민들에게 화폐로 조세를 거두고 다시 현물을 구매하여 조세를 상납하는 稅穀防納이 성행하였다.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인하여 환곡에서도 화폐경제를 이용한 수탈이 가중되어 갔다. 移實·加作·錢還 등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농민수탈이었다. 이와 같은 세곡방납과 환곡수탈은 국가적 상품화폐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서리나 수령 등이 농민의 경리를 완전히 화폐화할 수 없었던 상품화폐경제의 미숙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농민층은 더욱 몰락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세의 화폐납의 진전 뿐만 아니라 부세운영의 화폐화가 진전되고 조세의 지세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부세운영방식이 도출되었다.²⁰⁾

18) 고동환, <19세기 賦稅運營의 변화와 呈訴運動> (《국사관논총》 43, 1993).

19)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20) 안병욱, <賦稅의 都結化와 崩潰적 수취체제의 해체 1> (《국사관논총》 7, 1990).

도결제하에서는 모든 조세가 한꺼번에 화폐로 수납되었으며, 기존 작부제하의 민간조세 수취기구가 부정되고 관에서 조세수취기구를 장악하여 부세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초반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중엽 무렵에는 대부분 군현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던 도결제는 결국 우리 나라 봉건적 조세수취제도의 최종적인 표현임과 더불어 근대적인 지세제도로 전화하는 과도적인 조세형태였다. 봉건적인 조세제도가 신분제, 지주제, 그리고 자연경제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의 생산력과 국가권력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에 조응하여 만들어진다고 볼 때, 도결제는 신분제의 붕괴, 지주제의 확대발전과 토지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상품화폐경제의 농촌경리에서의 침투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조세수취형태였다. 또한 도결제는 봉건국가의 향촌민에 대한 지배력이 향촌사회의 유력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곧바로 관료기구만을 매개로 장악되어 가는 국가공권력이 인민에 대한 개별적 지배력의 강화과정에서 나타난 조세수취형태이기도 하다. 이는 전반적으로는 근대적인 조세수취를 지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봉건적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봉건적 조세를 부과, 수취하는 주요한 경제제도가 봉건적인 지주전호제로 고정화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조세수취의 기준이 각 향촌공동체 내에서의 세력관계의 강약에 따라 이루어지기 쉬운 結負制에 여전히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즉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 토지생산성의 차별성이 약화되는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세력의 강약에 따른 조세수취의 불균등성이 유지됨으로써 봉건적 조세수취의 한 본질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도결제는 19세기 이후 조세의 지세화와 금납화의 최종적인 도달점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19세기 부세운명변화의 제도적 성격은 점차 봉건적 특권에 따른 부세불균을 지양하면서 균등한 조세부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결제하에서도 여전히 총액제와 공동납원칙은 고수되고 있었다. 때문에 결가의 고액화현상은 빈농층의 유리를 막을 수 없었고, 나아가 빈농층의 유리로 발생한 조세부족분을 손쉽게 요호부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각종 특권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에서 면제되었던 부농들도 결국에는 부세수탈의 주요한 대상으로 변해 갔던 것이

다. 이는 조세의 토지집중과 상품화폐경제에 기초한 부세운영과정에서 신분적 특권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개항 이후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농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결가의 고액화는 소빈농층의 재생산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농층에게도 더 이상 성장의 여지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조세불균의 심화는 관과 민의 관계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주와 전호, 부농과 빈농사이의 계급대립을 첨예화시켰다. 또한 도결제는 각 군현단위로 달랐던 부세의 운영방식을 단일한 체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농민항쟁에서 군현단위의 분산고립성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연대에서 대국가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만든 것이었다.²¹⁾

농민전쟁 당시 농민들은 폐정개혁안을 통해 대원군의 섭정 요구와 같은 정치적 요구나 탐관오리의 침학을 제거하는 요구와 더불어 삼정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된 요구로 내걸고 있었다. 농민들의 부세수탈의 시정요구의 내용은 대체로 軍錢의 濫徵을 금지하고, 洞布錢의 정액화를 요구하였고, 結錢의 매년 증액금지, 臥還의 폐지, 陳結加稅의 금지, 稅米의 無名加捧금지, 각종 烟役의 疊徵을 금지할 것 등 다양하였다.²²⁾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부세수탈의 문제는 단순히 봉건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된 부세운영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중세사회 해체기에 신분제의 동요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서 비롯된 구조상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빈농을 주력으로 하고 부농 그리고 중소지주층까지 포함한 세력들이 서리, 영주인층, 수령과 감사 등 국가적 상품화폐경제를 장악한 세력에 대한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부세운영에 관한 한 지주-소작관계의 모순이 전면화되기 보다는 국가적 상품화폐경제를 둘러싼 대립관계가 보다 전면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21)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22) 한우근, 《東學亂 起因에 관한 研究-社會的 背景과 三政의 紊亂을 중심으로-》 (서울대 출판부, 1971).

4)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고양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지배구조였던 사족지배체제는 18세기 이후 점차 동요, 해체되고 수령-서리로 이어지는 공적 권력이 지배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종전 수령과 사족간의 견제와 협조를 통해 향촌민을 지배하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재지양반이 장악한 향청은 수령권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것이다. 수령권에 의한 향촌장악과정에서 일부 사족들은 관권과 결탁하여 토호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향촌사회의 실력자로서 新鄕세력이 대두하였다.²³⁾ 그러나 향촌사회의 실력자였던 신향층이나 饒戶富民層은 구래의 사족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형성할 단계까지 이르지지는 못하였다.²⁴⁾ 이들은 상업적 농업이나 상업에의 투자 등 구래의 사족과 부의 축적기반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부세운영과정에 관권과 결탁하거나 또는 고리대 등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구래의 사족과 부의 축적기반이 다를 바가 없는 계층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래의 지배체제를 대체하여 새로운 사회를 열어 나갈 주체로 성장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체제와 봉건적 사회체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계층이었다.²⁵⁾

이처럼 19세기 향촌사회는 구래의 사족지배체제가 동요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신향과 요호부민층이 대두하는 등 사회구조가 점차 변동하고 있었다. 18세기에 전면화되었던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향과 구향간의 대립은 적어도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잠복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향촌사회의 구체적인 대립은 지주와 소작관계, 나아가 수령-서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부세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반발하는 요호부민·빈농층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19세기에 이르면 농민층의 항쟁도 점차 고양되어 갔다.

23)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서울대출판부, 1998).

24) 안병욱, 〈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 鄕會와 饒戶〉(《韓國史論》 14, 1986).

25) 이윤갑, 〈19세기 후반 경상도 星州地方의 농민운동〉(《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88).

18세기 수령권에 대한 저항은 殿牌作變, 松田放火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부터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행위까지도 나타나지만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저항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⁶⁾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대부분 동리민인들이 관청앞에 몰려가 官門會哭의 형태로 시위를 벌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이와 같은 농민층의 저항은 합법적인 공간속에서 呈訴運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수령이나 서리의 잘못에 대해서 官門會哭이라는 소극적인 저항을 뛰어넘어 所志를 작성하고 직접 수령에게 억울한 일을 시정해 줄 것을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정소운동은 대부분의 군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정소운동의 전개는 당연히 농민층 내부에 문자를 아는 농민적 지식인층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자를 모르는 농민들의 억울한 일을 대신하여 소지를 작성하거나 부세문제의 농민적 해결에 앞장서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1862년 晉州民亂의 柳繼春의 사례에서 보듯이²⁷⁾ 특정 직업을 지니지 않고 ‘呈營呈邑’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었다. 1894년 고부민란단계의 전봉준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부세문제의 농민적 해결을 위해 농민들의 소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²⁸⁾

이러한 농민적 지식층의 성장은 향촌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농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기하고, 농민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1862년의 농민항쟁이 일시에 70여 개 군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란이라는 봉기단계 이전에 이와 같은 합법공간에서의 다양한 정소운동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권력과 유착하여 농민들을 수탈하는 자도 없지는 않았지만 농민봉기에 돌입했을 경우 대부분 이들이 지도자로 추대되고 있었다.²⁹⁾

한편 농민층의 조직역량도 성장하였다. 부세운영에서 도결제가 도입되면서

26) 한상권, <18세기 중·후반의 농민항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2-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2).

27)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동녘, 1988).

28) 《全琮準供招》乙未 二月二十一日 全琮準 再招問目.

29) 고동환, <19세기 賦稅運營의 변화와 呈訴運動> (《국사관논총》 43, 1993).

동리민인들이 부세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민회나 리회 등의 농민집회가 대부분의 향촌에는 존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촌계류의 생활공동체나 두레와 같은 노동공동체도 농민들의 일상적인 조직체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³⁰⁾

특히 개항 이후 대원군 정권기에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두 차례의 외세와의 전쟁을 경험한 뒤에도 농민항쟁은 계속되고 있었다.³¹⁾ 특히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씨정권이 들어선 이후 농민항쟁은 더욱 고양되고 있었다. 고종 25년(1888)을 경계로 민란은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³²⁾ 민란의 일상화 속에서 축적된 항쟁의 경험은 농민적 지식인층의 주도하에 농민들이 항쟁의 주체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개항 이후 향촌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농민적 지식층들도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봉준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촌사회 문제, 특히 부세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향촌에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얻고 있는 자들이기도 했다. 농민항쟁은 이들의 주도하에 촉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향촌사회를 기본 공간으로 하여 전개된 항쟁 이외에도 처음부터 무장봉기를 목적으로 추진된 병란도 19세기 후반에는 빈발하였다. 고종 6년(1869) 광양란과 고종 8년(1871) 이필제란 등은 그러한 예였다. 또한 정감록류의 도참비기사상에 근거한 각종 변란도 19세기에는 자주 나타났다. 이들 병란이나 변란의 주도자들은 향촌내부에 존재근거를 지니기 보다는 동학이나 정감록류의 이념에 기초하여 조선왕조를 부정하던 지식인층이었다.³³⁾ 동학농민전쟁은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움직임이 하나로 합일되면서 전국적 규모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30) 김인걸, <朝鮮後期 村落組織의 변모와 1862년 농민항쟁의 조직기반> (《진단학보》 67, 1989).

31) 고동환, <대원군 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1894년 농민전쟁연구 2-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2).

32) 백승철, <개항이후(1876~1893) 농민항쟁의 전개와 지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 2-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2).

33) 배항섭, <19세기 후반 '變亂'의 추이와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2-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2).

그러나 농민전쟁의 기본흐름은 향촌사회에 기반하여 사회적 모순을 농민적으로 해결하려는 민란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동학사상은 농민전쟁의 지도이념이 될 수 없는 정치적 空洞性的의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동학사상에서는 당시 농민의 현실을 죽을 처지에 빠진 인민 등의 상태로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현실 그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는 했지만,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後天開闢・同歸一體・輔國安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관념, 환상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추상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학이념은 농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의 힘으로 투쟁해 갈 수 있는 이념을 제공할 수 없었다. 농민전쟁시 농민들의 사상과 행동은 동학에 근거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창조한 것이었다.³⁴⁾ 이러한 이념과 사상은 정소운동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적 지식인층, 즉 향촌사회에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자들에 의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봉건적인 계수탈에 반대하는 반봉건 이념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정치, 경제적 침탈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高東煥〉

2. 동학교조 신원운동

1) 동학교단의 조직과 운영

동학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그 전단계의 투쟁 양상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른바 조선 후기에 들어 빈발하던 民亂과 동학교단측에 의해 주

34) 정창렬, 《甲午農民戰爭 研究—全琫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도된 敎祖伸冤運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농민전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교조신원운동은 대체로 동학교단이 주도한 단순한 종교운동으로 파악함으로써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소홀했음이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 있다.¹⁾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전단계 투쟁으로서 동학농민전쟁을 趨動해 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연구는 동학농민전쟁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바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東學과 동학농민전쟁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민란이 빈발하고 있을 무렵, 1860년 4월 5일 慶尙道 慶州에서 몰락양반의 庶子나 다름 없던 崔濟愚(1824~1864)²⁾에 의해 창시된 東學은 지속되는 정치의 부패, 조세수탈의 가중,

-
- 1) 敎祖伸冤運動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光淳, 〈崔海月과 非暴力運動〉(《韓國思想》1·2, 1957).
 金義煥, 〈1892~1893년의 東學農民運動과 그 性格—參禮聚會·伏閣上訴·報恩集會를 中心으로—〉(《韓國史研究》5, 1970).
 韓祐勸, 〈東學的 性格과 東學敎徒의 運動〉(《한국사 17: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1973).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朝鮮史研究會論文集》19, 1982).
 鄭昌烈, 〈東學敎門과 全琫準의 關係—敎祖伸冤運動과 古阜民亂을 中心으로—〉(《19世紀 韓國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 〈古阜民亂 研究〉上·下(《韓國史研究》48·49, 1985).
 張泳敏, 〈東學的 大先生伸冤運動에 관한 一考察〉(《白山朴成壽敎授華甲紀念論叢 韓國獨立運動史의 認識》, 1991).
 申榮祐, 〈報恩과 東學集會〉(《外俗離 書院溪谷 文化遺蹟》,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 〈장안 마을 東學 大都所와 돌성 築造의 의미〉(《報恩 帳內里 東學遺蹟》,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3).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1993).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1894년 농민전쟁연구》4, 1995).
 2) 최제우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庶子가 아니라 再嫁한 寡婦의 아들이다.

계급적 모순의 심화, 흉년과 질병으로 인해 불안과 고통속에서 삶을 지탱해 가던 조선사회의 기층민들에게 큰 호소력으로 파고 들었다. 기존의 부패한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하면서 민중들에게 포교된 동학은 사회개혁을 바라던 일부 지식인층과 민중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사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적 윤리가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동학은 이단 시되었고, 일부 지식층과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한 동학 교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1863년 12월 체포된 최제우는 ‘左道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는 죄명으로 이듬해 3월 10일 처형되었다. 최제우의 처형 이후 동학교세는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그의 제자 崔時亨(1827~1898)의 노력으로 1870년대 후반에는 지도체제가 확립되었고, 동학의 기본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集成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종교의식이 확립되어 교세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는 丹陽·槐山·淸風·忠州·淸州·沃川·報恩·公州·木川·禮山 등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증가되는 동학의 교세는 당시 지배층에게 만만치않은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 수령들은 지속적으로 동학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1880년대 이후 지방 수령들에 의한 동학 탄압은 邪學을 금단한다는 명분 아래 동학교도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잡아 가두는 등의 형태로 이어졌으며 동학교도들은 피신과 도망, 석방금을 내고 풀려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교문을 지켜 나갔다.³⁾

그러나 1890년대 초에 들어와 동학교단은 ‘敎祖伸冤運動’⁴⁾이라는 합법적 청원운동을 통해 동학을 공인받으려 하였다.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伸冤함으로써 동학의 공인과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으려 했던 교조신원운동은 經國大典에 보장된 伸訴제도를 통해 조정의 공인을 받기 위한 집단적 시위운동으로 나타났다.

3) 1880년대에 지방 수령들에 의해 자행된 동학 탄압사례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 잘 밝혀져 있다.

朴孟洙, 《崔時亨研究－主要 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표 12〉 참조.

4) 1864년 3월 10일에 ‘左道惑民之律’에 의해 처형당한 동학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伸冤하려는 운동으로서, 교조의 신원은 곧 東學의 公認과 布敎의 자유를 허락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 교조신원운동의 전개

(1) 공주취회

공주취회는 1890년대 초에 전개된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또한 당시 동학교단을 이끌고 있던 최시형의 지도노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집회로 인식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徐丙鶴·徐仁周 등이 최시형의 승인이 없이, 혹은 반대를 무릅쓰고 공주취회를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⁵⁾ 이같은 연구는 1871년 3월에 일어났던 寧海民亂 당시 李弼濟의 제의를 최시형이 적극 만류하고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맞물려 최시형을 더욱 ‘보수적인 인물’로 규정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은 최시형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발굴된 자료들에 의하면 최시형은 영해민란에도 적극 참여했으며,⁶⁾ 1892년 7월에 서인주와 서병학에 의한 교조신원운동 전개 요청 이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최시형은 1892년 8월 21일 淸州 松山 孫天民家에 머물면서 忠州에 거주하는 辛司果에게 서한을 보내 40명의 ‘望碩之士’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가지고 9월 10일까지 직접 淸州 松山 孫士文家⁷⁾로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⁸⁾ 또한 1892년 8월 29일에는 호남좌우도 편의장 南啓天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輪照〉를 하달하였다.⁹⁾ 南啓天에게 보낸 〈윤조〉 역시 1백여 명을 선발하여 주조성명이 적힌 명단을 9월 5일까지 보내도록 지시하

5) 기존 연구들은 〈海月先生文集〉, 〈本敎歷史〉, 〈侍天敎宗釋史〉 등 동학교단사에 근거하여 최시형이 1892년 7월에 徐仁周와 徐丙鶴이 제의한 敎祖伸冤運動 전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6) 관변측 자료인 〈嶠南公蹟〉과 〈寧海賊變文軸〉, 교단측 자료인 〈崔先生文集道源記書〉와 〈海月先生文集〉 등은 최시형이 1871년 3월의 寧海民亂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7) 孫士文은 孫天民을 가리킨다. 士文은 손천민의 字이다.

8) 〈神師의 遺墨〉(《天道敎會月報》195, 1927. 3).

9) 〈1892. 8. 29 輪照〉(《海月文集》, 《海月文集》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앞에 소개한 朴孟洙의 학위논문에 실려 있다).

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모두 공주취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본격적인 교조신원운동의 전개를 위한 사전준비였다고 생각된다.

1892년 10월 서인주와 서병학은 재차 최시형을 찾아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시형 역시 수령과 이서 토호들의 침학에 시달리고 있던 교도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¹⁰⁾ 두 사람의 건의를 받아 들어 교조신원운동을 허락하는 立義通文을 하달하였다. 1892년 10월 17일 밤에 하달된 입의통문의 요지는 각 접주와 교도들에게 伸冤의 大義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1892년 10월에 전개된 公州聚會는 종래 알려진 것처럼 서인주·서병학 2인이 최시형의 허락없이 전개한 것이 아니라 최시형의 허락 아래 교단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인주와 서병학 등이 최시형의 허락을 얻어낸 까닭은 교주의 허락이 있어야 동학조직의 동원이 가능하고 많은 교도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伸冤의 大義에 적극 참여하라’는 최시형의 입의통문이 각지의 접주들에게 하달된 후 충청감사에게 최제우의 신원을 호소하기 위한 公州議送所가 설치되었다.¹¹⁾ 이 내용에 의하면, 각 접주는 ‘誠德信義知事之道儒’를 인솔하고 공주의송소로 와서 淸州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려 처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淸州는 최시형이 은거하고 있던 淸州 松山 손천민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손천민가에는 孫天民·徐仁周·徐丙鶴 등 신원운동 지도

10) 당시 최시형이 교조신원운동을 허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天道敎創建史>는 “이 해 十月에 徐仁周 徐丙鶴이 또한 固請하고 諸道人이 亦是 指目을 견디지 못하여 곧게 伸冤함을 請한대 神師 이에 立義文을 지어 各地에 遍諭하시니 (《東學思想資料集》 貳, 135쪽)”라 하였고, <東學史>에서는 이 해 十月에 四方에 있는 道인들이 指目에 쫓겨 모여온 자 많아야 伸冤할 일을 請하는 자 많은 지라 先生은 이 여러 사람의 뜻을 쫓아 許諾을 하고 곧 입의문을 지어 효유하니(《東學思想資料集》 貳, 426쪽)”라 하여 관의 탄압과 지목에 시달리던 하층교도들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서인주 서병학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였다.

11) ‘公州議送所’에 관한 내용은 奎章閣에 소장된 <東學書>, 동학·천도교측 자료인 <本敎歷史>, <侍天敎宗釋史> 등에는 없고 全北 扶安에 있는 천도교 호암수도원에 소장되어 있는 『海月文集』에만 실려 있다. 立義通文이 도착된 후 각 地方 接主들이 취해야 할 행동지침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부가 왕래하면서 최시형의 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공주취회에 참가한 각 접주 및 교도들은 최시형-손천민, 서인주, 서병학-공주의송소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의송소’에 모인 각 지방 접주들과 교도 1천여 명은¹²⁾ 10월 20일경¹³⁾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議送單子를 작성하여 충청감영에 제출하였다. 이 의송단자는 10월 17일 밤에 발송한 立義通文에서 최시형이 주장했던 동학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西學의 만연 현상 및 倭國之商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⁴⁾ 충청감사에게 제출된 의송단자에 나타난 西學과 倭商에 대한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금 서양 오랑캐의 學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뒤섞여 있고 왜놈 우두머리의 毒이 외진에 도사리고 있으니 망극할 일이며, 음흉하고 거역하는 삭이 임금님의 수레 바로 밑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절치부심하는 일이다. 심지어 왜놈 상인들은 각 항구를 두루 통하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는 이익을 저들이 마음대로 하니 돈과 곡식이 마르고 백성들이 지탱하고 보전하기 어렵다. 心腹같은 땅과 咽喉같은 장소의 관세 및 시장세와 산림과 천택의 이익마저 오로지 바깥 오랑캐에게로 돌아가니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바이다.”¹⁵⁾ 여기에 나타난 斥倭洋의식은 1892년 11월의 삼례 취회에서, 그리고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단계와 3월의 보은취회, 그리고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 단계에서도 한결같이 강조된다. 왜양을 강하게 배척하고 동학금단을 구실로 한 전제수탈을 금해줄 것을 요구한 의송단자를 받은 충청감사는 10월 22일 “동학을 금하고 금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朝家の 처분에 달린 것이므로 監營에서는 단지 조가의 명령을 따라 시행할 뿐이므로 감영에 와서 호소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12) 〈時聞記〉(《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驪江出版社, 1994), 175~176쪽.

13) 충청감사의 題音이 10월 22일에 나왔으므로 의송단자 제출일자를 10월 20일경으로 추론하였다.

14) 원래 東學의 斥倭洋意識은 1860년에서 1863년 사이에 최제우가 지은 東經大全과 용담유사 등의 저작 속에 이미 드러나 있었다.

15)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韓國民衆運史資料大系：東學書》，驪江出版社, 1986), 64~65쪽.

각 군현 守宰들에게 동학을 금한다는 핑계로 討索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치를 담은 甘結을 하달하였다.¹⁶⁾

충청감사의 감결은 실제로는 기만적인 것이었지만 30년동안 탄압과 지복에 시달려 온 최시형으로서는 동학금단을 구실로 한 수령, 이서, 토호배들의 수탈행위를 금하겠다는 충청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라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공주취회는 집단적인 呈訴 형식 덕분에 희생자가 없었다. 비록 ‘敎祖의 伸冤’이란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동학교도에 대한 관리의 탄학을 금한다는 甘結을 얻어냄으로써 동학교단 지도부는 상당히 고무되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신원운동인 공주취회는 이후 전개될 삼례취회를 비롯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취회 등 일련의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2) 삼례취회

공주취회에서 충청감사로부터 ‘지방관들의 동학금단을 구실삼은 토색을 금한다’는 甘結을 얻어낸 동학교문은 크게 고무됐다. 공주취회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교단 지도부는 충청도와 함께 탄압이 극심했던 전라도에서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충청감영에서 얻어낸 성과들을 전라감영에서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최시형 등 교단 지도부는 교통이 편리한 參禮驛을 집결 장소로 택하였다.

전라도 삼례에 집결하라는 동학 지도부의 동원령이 담긴 敬通¹⁷⁾은 1892년 10월 27일(음력) 밤 全羅道 參禮道會所 명의로 각 포에 발송되었다. 이 경통은 ‘錦營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完營에 議送單子を 내는 것 또한 天命’¹⁸⁾이라 하여 삼례집회의 목적을 밝히는 한편, ‘모임에 달려오지 않으면 별단의 조치를 마련함은 물론이요 하늘로부터 죄를 받을 것’¹⁹⁾이라며 교도들의 참여

16) 위의 책, 68~70쪽.

17) 동학교단 지도부와 각 지역의 包와 接, 또는 포와 포, 접과 접끼리 중요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했던 通文을 말한다.

18) 〈敬通〉,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東學書》, 70쪽.

19) 〈敬通〉, 위의 책, 71쪽.

를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10월 29일부터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동학교도들은 11월 1일에 이르러서는 수천을 헤아리게 되었다.²⁰⁾ 11월 2일 姜時元·孫天民 등은 최시형의 재가를 받은 〈各道儒生議送單子〉를 전라감사 李耕植에게 제출하여 大先生²¹⁾의 원한을 풀어 주도록 간청하였다. 이 議送單子에서 동학교도들은 “최제우선생이 上帝의 명을 받아 儒佛仙 三道を 합해 하나로 만들어 한울님을 지성으로 섬기며 儒로서는 五倫을 지키며 佛로서는 심성을 다스리고 仙道로는 질병을 제거케 했다”²²⁾며 동학사상의 정당성을 천명한 뒤, 대선생이 무고한 죄명으로 처형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그 冤抑을 풀어 大道를 뚝뚝이 세상에 彰明할 수 없었던 恨을 호소했다. 또 동학과 서학을 ‘氷炭의 관계’로 규정하고 동학을 “윤리도 없고 분별도 없는 西學과 더불어 차별없이 취급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주장하면서 ‘서학의 여파로 간주, 유독 동학에 대해서만 힘을 기울여 배척하는 행위’의 온당치 못함을 지적하였다.²³⁾ 뿐만 아니라 “列邑의 수령들이 빗길하듯 잡아 가두고 재산을 討取하여 쓰러져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더불어 豪民들마저 侵虐에 가담하여 道人(동학교도)들이 정치없이 떠돌며 살 길이 없게 하고 있다”²⁴⁾며 동학에 대한 지방 수령과 토호들의 탄압과 이를 빙자한 토색을 고발하고, 동시에 “서양오랑캐의 學과 왜놈 우두머리의 毒이 다시 外鎮에 들어 앉아 날뛰며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²⁵⁾며 外勢의 창궐을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아 공주취회에 서도 주장한 斥倭洋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결국 의송의 요지는 동학은 서학을 배격하는 忠君孝親·廣濟蒼生·輔國安民의 敎이므로 조정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여러 道에 대해 간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학 포교의 자유를 공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20) 이 때의 참여 규모를 〈天道敎書〉는 “11월 1일 각지 두령이 포내 도인들을 술하고 參禮驛에 赴하니 그 參會者 수천인이라”하였고, 〈天道敎會史草稿〉는 “11월 3일에 각지 두령이 포내 도인을 술하고 삼례역에 會集한 자 수천이라”고 전하고 있다.

21) 당시 동학교도들이 교조 최제우를 존칭하여 부르던 호칭.

22)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 위의 책, 71~72쪽.

23)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 위의 책, 72쪽.

24) 위의 책, 73쪽.

25) 위의 책, 74쪽.

그러나 동학교도들이 제출한 의송단자에 대해 전라감영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엿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삼례취회 지도부는 11월 7일경 독촉 議送을 다시 보냈다. 11월 9일에는 “너희 동학은 나라에서 금하는 바이다. 사람의 심성을 갖추고서도 어찌하여 正學을 버리고 이단을 좇아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인가. 소장의 내용인즉 동학을 널리 포교토록 허용하기를 바랐으니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곧 물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²⁶⁾는 題音을 내렸다. 이러한 무성의한 제음은 동학교도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러자 이경직은 11월 11일자 甘結을 통해 ‘동학 禁斷을 빌미로 한 錢財의 수탈을 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²⁷⁾ 11일자 감결은 동학을 공인하지 않은 채 교도들에 대한 지방수령들의 토색질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충청감영에서 하달된 감결과 비슷한 요지였다. 이에 따라 동학교단 지도부는 11월 12일 完營道會所 명의의 경통을 내려 ‘道는 비록 나타났으나 冤은 아직 풀지 못했다’며 삼례취회의 제한적 성과를 내세우고 ‘法軒(해월 최시형)의 지휘를 기다려 雪冤을 도모토록 고심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히면서 ‘곧 귀가하여 길가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산을 종용하였다.²⁸⁾ 12일자의 경통은 또 “첫째, 처신과 행사는 도리에 합당했으니 이제부터 더욱 도리에 힘쓰자. 둘째, 삼례취회는 대의명분에 떳떳하다. 해월 선생이 직접 지휘하지 못한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라. 셋째, 이후 무단한 탄압이 있을 경우 소장 등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라. 넷째, 도리를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는 엄히 책망하라. 다섯째, 일찍부터 대의에 참여, 살림이 어려워진 교도들을 함께 도우라”²⁹⁾는 다섯 가지 행동강령도 하달하였다. 이로써 10여 일에 걸친 삼례취회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임시로 설치됐던 완영도회소는 철수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공식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도들은 해산하지 않고 있었다. 11월 19일자 北接道主 명의로 나온 통문이 이를 반증한다. 즉 ‘임금께 伏閣상소할 계획을 다시 도모하려 하니 다음 조치를 기다려 달라’

26) 〈題音〉, 위의 책, 75쪽.

27) 〈甘結〉, 위의 책, 77~78쪽.

28) 〈1892년 11월 12일 敬通〉, 위의 책, 78~79쪽.

29) 위의 책, 79~80쪽.

‘서로 도와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하여 합심해 異論이 없도록 하라’³⁰⁾는 경통 내용이 그 증거이다. 19일자 경통과 함께 21일자로 하달된 전라감영의 감결 또한 일부 교도들이 21일까지도 해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게시하라’는 당부까지 곁들인 두번째 감결의 주된 내용은 ‘동학교도들을 잘 타일러 편안히 살게 하며 읍속들은 토색질을 금하라’는 것이었으나 서두에서 ‘동학교도들을 安接토록 할 것’을 다시 지시하고 있어³¹⁾ 이때까지 해산하지 않거나 다른 곳을 떠돌며 귀향하지 않은 교인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곧 삼례취회가 지도부에 의해 11월 12일 공식 폐회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해산은 21일 이후로 볼 수 있다.

삼례취회는 당시 동학교단 교주인 최시형이 직접 주도한³²⁾ 조직적인 신원운동이었다.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대중집회를 통해 동학의 공인 및 포교의 자유획득과 같은 ‘정치적 요구’를 달성하려 했으며, 교문 자체의 문제를 넘어 당시 민족적 현안이었던 ‘斥倭洋倡義’의 실현까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삼례취회의 역사적 의의는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다. 삼례취회는 또 집단적인 운동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음과 동학교단과 일반민중과의 결합 가능성, 대중집회에 대한 실험 등을 성공적으로 타진함으로써 장차 동학농민전쟁의 징검다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3) 광화문복소와 척왜양방문 게시운동

공주와 삼례에서 행한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은 당초 요구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지방 수령들의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였다. 동학교도들에 대한 부당한 침학행위를 말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충청감사와 전라감사로부터 얻어낸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충청·전라 양 감영의 공문은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의 공인문제와 교조의 신원문

30) 위의 책, 82쪽.

31) 위의 책, 85쪽.

32) 삼례취회 무렵 최시형은 경상도 尙州 功城面 旺室에서 말을 타고 삼례로 출발하려다 낙상하여 실제 참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삼례취회를 지도한 孫天民, 姜時元 등은 최시형의 심복 제자들로서 사실상 최시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학교단 지도부는 교도들을 더욱 조직화하여 중앙 조정을 향한 신원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양 감영에서 모두 동학의 공인문제는 중앙 조정의 권한이라 언명하였기 때문이다.

중앙 조정을 향한 복합상소 계획은 이미 삼례취회 단계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삼례취회를 결산하는 1892년 11월 19일자 동학 지도부의 敬通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임금님께 복합할 계획은 방금 상의해서 다시 도모하려 하니 다음 조치를 기다리라”³³⁾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통 내용은 광화문 복소가 공주·삼례 신원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되었음을 보여 준다. 동학교단 지도부는 우선 1892년 12월 6일경 복합상소에 대비한 도소를 충청도 報恩 帳內에 설치하였다. 12월 6일 도소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실린 〈本敎歷史〉에 의하면, “당시 도소를 설치하자마자 각지로부터 오는 교도의 수가 폭주하여 迎送과 사무처리가 폭주했다”³⁴⁾고 전한다. 광화문 복합상소 계획은 이같이 몰려드는 민중들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학지도부는 1차적으로 도소에 몰려드는 교도들을 통제하기 위해 12월 6일자로 도소출입을 제한하는 경통을 보냈다. 그러나 복합상소는 쉽게 실행되지 못했다. 복합상소에 대한 지도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복합상소 계획에 대해 최시형의 허락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복합상소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복합상소를 전후한 탄압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학 지도부는 12월 중순께 서울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중앙 조정에 소장을 올렸다. 첫머리에서 “道란 사람으로서 다같이 행할 바를 이룬 것이니 邪가 있고 바름이 있으며 같음이 있고 다름이 있는 것은 모두가 사리를 바르게 구한 것이니 헛된 판단만이라 할 수는 없다”³⁵⁾고 〈朝家回通〉³⁶⁾이라는 상소장에서 지도부는 東學이 이단이 아님을 역설하고 충청도

33) 앞의 註 30)과 같음.

34) 〈本敎歷史〉(《天道敎會月報》 28, 1912. 11), 24쪽.

35) 〈朝家回通〉,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東學書》, 87쪽.

36) 명칭 그대로라면 ‘조정이 어떤 글에 대한 답을 내린 글’이라는 뜻이지만 내용을 보면 東學 都所에서 조정에 보낸 소장임을 알 수 있다.

· 전라도 지역에서 관리들의 탐학을 열거하면서 조정의 공평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동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관리들의 탐학금지를 요구하는 이같은 상소에 대답이 없자, 동학 지도부는 상경투쟁인 복합상소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그리하여 1893년 1월 淸州 松山에 있던 孫天民의 집에 奉疎都所가 설치되었다.³⁷⁾ 봉소도소의 임원은 姜時元·孫天民·孫秉熙·金演局·徐丙鶴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은 복합상소 계획을 각 지역에 알린 다음, 2월 초순경 서병학을 먼저 서울로 보내 都所를 정하는 문제와 숙소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서병학의 다른 지도자들은 2월 8일 과거보러 올라가는 선비차림으로 분장하여 일제히 상경했다. 이 무렵 서울에는 동학교도 수만 명이 외국인을 몰아내기 위해 상경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복합상소 당시 상경한 동학교도의 수는 분명치 않다. 수만 명이라는 기록도 전하지만 당시 일본 《東京日日新聞》이 게재한 수백 명 정도가 상경한 것으로 보인다.³⁸⁾ 복합상소는 2월 11일부터 시작됐다. 광화문 앞에 출두하여 복소한 인원(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다. 9명에서부터 80여 명에 이르기까지 분분하지만 대체로 동학지도부의 주요 인물들과 중견 동학지도자 40여 명이 복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朴光浩를 疎首로 한 복소참여자(는 13일까지 3일동안 상소문을 붉은 보자기에 싸서 상을 만들고 광화문앞에 나아가 엎드려 호소했다. 상소절차의 잘못을 들어 상소접수조차 거부하던 중앙정부는 14일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안주하면 원하는 바를 따라 해주겠다’는 내용의 傳敎를 내렸다. 정6품의 관원인 司謁이 전한 이같은 대답은 해산명령과도 같은 통고였다. 이리하여 1892년 10월부터 전개해 온 신원운동은 복합상소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원점에 서게 되었다. 오히려 소두 박광호를 잡아 들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동학교도들은 더욱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별무성과에도 광화문 복소는 동학교인들의 역사적 자각을 불러 일으키게 했으며 향후 투쟁방향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37) 〈權秉應自敘傳〉(《韓國思想叢書》, 330쪽).

〈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壹, 448쪽).

38) 《東京日日新聞》, 명치 26년(1894) 4월 19일.

광화문 복합상소 직후 京鄕에서는 斥倭洋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서울의 외국 공관과 교회당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掛書가 나붙었으며 지방 관아에도 외국인을 배척하는 榜文이 게시되었다. 특히 미국인 선교사 기포드의 학당에 붙은 패서를 시작으로 한 달 여동안 서울에서 잇따라 발생한 斥倭洋榜文 게시사건은 당시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광화문 복합상소 이전부터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이 외국인을 배척하고 몰아내기 위해 상경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더욱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서울주재 외국공관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본국과 연락을 취하고 자국민의 피난을 고려하는가 하면 조선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부당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이같은 척왜양방문 게시사건을 주도한 세력은 과연 누구이며 일련의 교조신원운동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또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전면에 내세워진 ‘斥洋斥倭’의 주장과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가. 이같이 제기되는 여러 의문은 척왜양방문 게시사건을 주도한 주도세력 문제와 관련지어 최근 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서울에서의 척왜양방문은 미국인 선교사 집에 붙은 두 건과 프랑스·일본 공사관에 나붙은 각 한 건의 榜文이 전부이다. 모두 한문으로 기록된 이들 패서는 내용상 서양의 기독교 침투와 일본의 세력확장에 강한 증오심을 담고 있다.

첫 패서는 광화문 복합상소가 해산한 다음 날인 1893년 음력 2월 14일 밤 미국인 선교사 기포드 학당의 문에 붙었다. “아, 슬프도다. 소인배들은 이 글을 경건히 받을지이다. 헤아려 보면 우리 동방의 나라는 수천년 예의와 범절의 나라였노라. 이러한 예의지국에 태어나 이 예의를 행하기에도 오히려 겨를이 없거늘 향차 다른 가르침을 생각하겠는가. (중략) 우리 도의 근원은 하늘에 나서 밝은 하늘의 뜻을 천하에 비치니 감히 날뛰면서도 도를 능멸할 수 있는가. 세상을 一致할 도는 理致중에 있으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으랴. 소인배들은 대도를 함께 하여 사람마다 그 書冊을 불태우면 혹시 만의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지 모르겠다.”³⁹⁾ ‘白雲山人 弓之先生’이라 하였을 뿐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붙은 이 방문은 기독교를 믿는 조선인들

에게 경고한 글로 보여진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방문은 이어 같은 달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에도 붙었다. “敎頭 등을 효유하노라”로 시작되는 이 방문은 그 말미에 “너희들은 빨리 짐을 꾸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忠信仁義한 우리는 갑옷·투구·방패를 갖추어 오는 3월 7일에 너희들을 성토하겠노라”⁴⁰⁾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외국인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또 프랑스공관에도 같은 달 20일을 전후해 비슷한 내용의 패서가 붙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프랑스 공사는 본국에 兵船 세 척의 파견을 요청했고, 병선이 인천항에 대기중이라는 기록이 전한다.⁴¹⁾ 1893년 3월 2일 일본공사관 앞벽에도 방문이 나붙었다. “일본 상려관은 꾀보아라”로 시작된 이 방문은 “아직도 탐욕스런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웅거하여 공격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혈육을 본업으로 삼으니 진실로 무슨 마음이며 필경 어찌하자는 것인가. (중략) 하늘은 이미 너희들을 증오하며 스승님은 이미 경계하였으니安危의 기틀은 너희가 취함에 달려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빨리 너희나라로 돌아가라”⁴²⁾라고 하여 당시 일본의 침략을 경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광화문복소를 전후하여 榜文揭示를 통해 척왜양운동을 이끈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방문 자체가 모두 익명으로 된 데다 당시의 척왜양의 식은 어느 한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조선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도세력을 지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첫째 동학교단 지도부가 복합상소운동과 병행하여 벌였을 가능성, 둘째 동학교단 내의 혁신세력이 독자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 셋째 동학과는 별개의 세력들이 벌인 척왜양운동일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당시의 동학교단 지도부가 척왜양방문 게시사건을 주도한 세력일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은⁴³⁾ 동학사상과 동학교단 안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척왜양의식을 강조한다. 특히 公州·參禮취회 단계에서 강하게 표

39) 《舊韓國外交文書》10：美案，高宗 30년 2월 18일(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1967)，718～719쪽.

40) 《舊韓國外交文書》10：美案，高宗 30년 2월 19일，719쪽.

41) 金允植，〈續陰晴史〉上，癸巳 2月 24日條，257쪽.

42) 《舊韓國外交文書》2：日案，高宗 30년 3월 2일，385쪽.

43) 張泳敏，앞의 글 참조.

출된 척왜양의식을 기반으로 동학지도부가 복합상소운동과 병행하여 배외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보은취회에서 ‘斥倭洋倡義’의 깃발로 올려졌다는 입장이다. 동학지도부는 그동안 지방관리들의 탐학행위는 직접 체험했으나 외국세력의 위협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광화문복소를 위해 상경한 뒤 비로소 외세의 위협을 실감한 지도부는 보국안민의 절박한 역사의식에서 배외운동을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화문복소 직후 일어났다는지, 동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방문 내용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1893년 3월의 척왜양운동을 주도한 세력에 관한 또 하나의 입장은 동학의 혁신파를 지목하는 견해이다. 동학내에 지도부와 다른 성격의 혁신세력이 당시 이미 존재했음을 전제로 한 이같은 견해는 종래 학계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온건한 방법의 광화문복소 대신 실력 대결을 주장했던 徐丙鶴 등 혁신파가 지도부의 제지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복소와는 별도로 배외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천도교 일부 자료에 “서인주·서병학은 상소하여 진정할 뜻이 없고 교도로 하여금 兵服을 바꿔 입도록 하고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조정을 크게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는지라, (중략) 神師(최시형)가 이에 부당함을 책하였다”⁴⁴⁾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서병학이 복합상소를 비롯한 신원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하였고 보은취회에서 금구취회를 비난한 말, 무력침입의 시기적 폭발성을 들어 비판되고 있다. 또 당시 조선주재 일본 변리공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문서 등에 근거, 서울에서의 척왜양방문게시사건이 전라도 지방의 동학의 여러 갈래가 중심이 됐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⁴⁵⁾ 즉 여러 갈래의 동학교도들이 척왜양방문을 게시하고, 패서에서 나오는 3월 7일 서울에서의 왜양성토를 시도했으며 이를 위해 지방에서의 상경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 자료에서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응집되어 이후 金溝에서 독자적인 취당을 갖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그 지도자가 全琫準이라는 것이

44) <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壹), 449쪽.

<天道教創建史>(<東學思想資料集> 貳), 143쪽.

45) 鄭昌烈, 앞의 글 참조.

다. 셋째 척왜양방문 게시사건이 동학도의 복합상소 직후에 일어났고, 동학교도가 상경하여 외국인을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척왜양사건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⁴⁶⁾ 이와 관련 광화문복소를 계기로 동학과는 별도의 광범위한 배외세력들을 결집하여 일으킨 배외운동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사회는 프랑스와 미국선교사들의 거리낌없는 활동, 방곡령에 따른 일본의 배상요구, 청·일상인들의 조선 상권의 잠식 등으로 외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이 팽배해 있던 점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외세에 대한 조선사회의 반감은 패서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화적들의 외국상인 습격이나 중국상인 점포에 대한 방화, 1890년 서울 상인들의 집단적인 同盟撤市 투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일반 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척왜양방문 게시사건의 주도세력을 놓고 이처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각 입장차이는 직접적인 근거 대신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머무르고 있다.

(4) 보은취회와 금구취당

1893년 3월 11일, 報恩 帳內里에서 시작된 ‘보은취회’는 동학농민전쟁의 전 단계를 밝히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전라도 金溝懸 院坪에서 이루어진 ‘院坪聚黨’과 함께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학계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금구취당’이 동학농민전쟁의 前史로서 그 정치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보은취회’는 물리적 투쟁을 되도록 자제하려 했기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취회가 동학교단의 조직역량을 확인시킨 집회였던 점, 이전의 신원운동이 ‘교조의 신원’이라는 종교적 요구 중심으로 이뤄졌던 데 비해 보은취회는 ‘척왜양’의 기치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집회였던 점, 그 목적이 척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탐학관리와 세도가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보은취회 역시 사회개혁운동의 한 맥락으로, 또한 동학농민전쟁의 전단계 투쟁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46) 배향섭, 앞의 글, 34~36쪽.

보은취회는 우선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만 명의 道人들이 참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정에서 파견된 宣撫使 魚允중이 올린 보고서를 보면, “처음에는 부적, 주술로써 무리를 현혹하고 참위를 전하여 세상을 기만하였는데, 필경에는 才氣를 갖추고도 뜻을 얻지 못한 자, 貪墨이 횡행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민중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자, 外夷가 우리의 利源을 빼앗는 것을 분통하게 여겨 큰소리 하는 자, 貪士·墨吏의 침학을 당해도 호소할 바 없는 자, 京鄕에서의 武斷과 협박때문에 스스로를 보전할 수 없는 자, 京外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자, 營邑屬들의 부랑무리배, 영세농상민, 풍문만을 듣고 뛰어든 자, 부채의 참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 常賤民으로 뛰어나 보려는 자가 여기에 들어 왔다”⁴⁷⁾라고 하여 당시 사회의 기층민중과 사회구조에 큰 불만을 가진 세력 등 다양한 계층에서 모여 들었음을 보여 준다.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모여든 인원은 대략 3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이들은 산아래 평지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대오를 정비하며 ‘斥倭洋倡義’라고 쓴 기를 내거는 한편 새로운 방문과 통문을 냈다.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느는데다 통문을 나붙이는 등 세가 더해지자 3월 16일 보은 군수 李重益이 해산령을 내렸으나⁴⁹⁾ 이에 대해 도인들은 “창의함은 오직 척왜양에 있으니 비록 巡營의 甘飭이나 主官의 面諭라도 그칠 수 없다. 또 동학은 처음부터 邪術이 아니며, 설사 사술이라 하여도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는 지경에서는 忠義 하나 뿐이니, 각처 유생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죽음을 맹세하고 충에 진력하고자 한다”⁵⁰⁾라고 하여 해산을 거부하고 다시 “왜양지사를 치는 것으로 죄삼아 가둔다면 和를 주장하는 매국자를 상준단 말인가? 어찌 우리 순상의 밝음으로써 헤아리지 못함이 이처럼 심하단 말인가? 혹 미혹하여 왜양의 신복이 되려는 자는 관령을 따르라”⁵¹⁾라는 榜을 내걸어 척왜양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47) 〈聚語〉(《東學亂記錄》上), 122쪽;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66~67쪽.

48) 金義煥, 〈近代朝鮮의 民衆運動〉, 68~69쪽.

표영삼, 〈보은 장내리 척왜양창의〉(《新人間》505, 1992. 5), 33~36쪽.

49) 東學人令, 〈聚語〉(《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39쪽.

50) 〈聚語〉(《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35쪽.

51) 〈聚語〉, 위의 책, 35~36쪽.

이처럼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보은군수의 해산령을 거절하면서 척왜양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출했다. 보은집회의 세력들이 척왜양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물론 그것이 큰 목적이기도 했지만 당시 유럽에 풍미하고 있던 衛正斥邪사상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그들이 집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척왜양은 조선사회를 이끌고 있던 봉건적 지배층에 의해 무난하게 용납될 수 있었던 봉건적인 대외사상에 부합되는 것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3월 22일 보은군수의 해산령도 거절하고 “지금에 이르러 생명이 도탄에 빠진 것은 방백수령의 탐학무도함과 세호가의 무단에 있으니 만약 지금 소청하지 못하면 어느 때에 국태민안이 있겠는가”라고 하여 지방수령들의 탐학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갈수록 확대되는 보은취회의 양상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게 된 조정에서는 3월 25일 충청감사 趙秉式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시키고 이들을 해산시킬 선무사로 어윤중을 보내는 한편, 충청병사 洪在羲에게 군사 3백 명을 이끌고 장내리로 가게 했다. 양호선무사 어윤중은 보은출신이었다. 그는 장내리로 가서 집도들을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왕의 칙유문을 발표했다. 이에 보은취회 지도부는 해산을 약속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를 돌려 보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집회는 이합집산의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보은취회 지도부는 4월 1일 순무사 어윤중이 公州營將, 淸州兵營 軍官, 報恩 군수를 대동하고 찾아와 왕의 綸音을 읽고 퇴산을 명하자 3일 안에 해산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崔時亨·孫秉熙·徐丙鶴 등은 도인들을 남겨 둔 채 4월 2일 밤을 틈타 도망하고 말았다.

광화문 복합상소에 이어 보은취회 역시 무력하게 해산되고 만 것은 결국 지도부가 무력투쟁을 회피한 결과였다. 이같은 보은집회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는 보은집회 지도부의 기만성, 불철저성, 패배주의로 인해 별다른 성과없이 실패한 점을 들어 동학농민전쟁의 전단계로서 높은 위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고,⁵²⁾ 둘째는 이 집회를 통해 민권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종교운동에서 벗어나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간 성격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는 있

52) 趙景達, 앞의 글 참조.

지만 그것은 금구취당을 주도한 세력의 독려에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⁵³⁾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성과로 볼 때 보은집회는 동학농민전쟁의 전단계로서 큰 위상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신원운동의 차원에서 정치적 투쟁의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편, 보은취회가 열리던 시기에 전라도 금구현 원평에서도 취회가 열리고 있었다. ‘金溝聚黨’이 바로 그것이다.⁵⁴⁾ 충청도 보은의 장내리에서 이른바 보은취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全羅道 金溝懸 水流面 院坪里⁵⁵⁾에서도 동학교도들의 별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음은 여러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원평은 전라감영이 자리잡고 있는 전주에서 서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큰 場이 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物産이 풍부하게 거래되었으며 따라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데다 官衙가 있는 금구로부터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어 여러 모로 안정맞춤이었다. 또한 母岳山과 金山寺로 상징되는 독특한 지리적 배경은 종교적 집회장소로의 선택에 중요한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원평지역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비결 신앙의 상징처럼 일컬어지고 있다. 당시에 민간신앙의 근거지였고 이 곳을 항상 감싸고 있는 적당한 신비로움이 고단한 현실에 찌들고 지친 민중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아 주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평집회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이곳이 보은으로 가는 전라도지역 교인들의 중간 기착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원평은 정읍·고창·장흥·영광·나주·함평·무안·순천·영암쪽에서 올라 오는 교도들이 반드시 거쳐 지나야 하는 거점이었다. 더욱이 金溝는 동학지도자 金德明包의 본거지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金德明이 동학교단의 大接主 위치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맡았으리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⁵⁶⁾

53) 鄭昌烈, 앞의 글 참조.

54) 《日省錄》, 고종 30년 3월 21일.

55) 현재의 김제군 金山面 院坪.

56) 원평은 금구취회의 집결지로서 뿐 아니라 동학농민들이 원평주위에서 성장하거나 활동했으며 사건의 주요한 지역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멀리 북쪽으로 삼례가 20km 거리에, 전봉준의 舊居가 있는 정

‘금구취당’은 1893년 3월 21일(음력) 이전에 이뤄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보은취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이다. 《일성록》 高宗 30년(1893, 癸巳) 3월 27일자 기사는 새로운 전라감사에 부임하는 金文鉉이 고종에게 辭陞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고종이 가로되 ‘湖南은 왕조가 일어선 터전이고 御眞을 모신 慶基殿이 있어 다른 지방과 달리 소중하고 나라 살림의 창고와도 같은 곳이다. 근래에 이르러 어찌된 까닭인지 풍속이 타락하고 인심이 간사, 교활해져 일종 동학의 무리가 창궐하여 날뛰다 하니 백성들을 안도하게 할 계책과 없애버릴 방책을 경이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라.’ 文鉉이 답하기를 ‘신의 역량이 보잘 것 없어 제대로 보담하지 못할 듯하오나 이른바 비도들이 준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변괴라 할 것입니다’ (중략) 고종이 이르기를 ‘말이란 한 번 두 번 옮기다 보면 터무니 없는 말을 지어내게 되는 것이니 족히 믿을 것이 못된다. 호남에서도 金溝에 가장 많다 하니 전주 감영에서 어느 정도 거리인가. 먼저 그 소굴을 격파하여 금단하고 일소하는 방도를 삼도록 하라.’ 文鉉이 답하기를 ‘30리 가량 되는 데 금구, 원평에 과연 취당하고 있다 하옵니다.’⁵⁷⁾

금구취당을 확인해 주는 또 다른 보고서는 〈討匪大略〉이다. 1894년 11, 12월의 농민군 토벌기사가 주로 실린 〈토비대략〉에는 “계사년(1893년) 4월 동학군 4, 5만 명이 일부는 湖西의 報恩 帳內에서 屯據하고 있었고 일부는 湖南의 金溝·院坪에 屯거해 있었다”⁵⁸⁾며 보은취회와 더불어 금구에서도 일정

읍군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이 서남으로 17km 지점에, 金開南의 고향이자 全州和約 이후 전봉준이 기거했다는 정읍군 산외면의 지금실이 남쪽 9km지점에 각각 위치해 있다. 전봉준이 어린 시절 한때를 보냈던 정읍군 감곡면 계룡리 황새마을 또한 서쪽 1.5km에 불과하며 말목장터는 서남쪽 13.5km, 1894년 3월 25일경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결진했던 白山은 서쪽 19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 대접주 金德明이 출생한 용계마을은 원평 동쪽 1km 지점에 있고 그가 성장하고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巨野마을은 원평 동쪽 2.5km 지점에 자리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원평을 중심으로 한 1일 생활권이었으며 한편으로는 院坪 市場圈에 속하는 곳이다. 이처럼 원평은 동학농민전쟁의 태동과 전개과정에서 항상 지리적 밀접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봉준장군이 지휘하는 최후의 전투인 구미란전투(1894년 11월 25일)를 원평은 직접 체험하게 된다.

57) 《日省錄》, 고종 30년 3월 21일.

한 규모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금구 원평집회에 모여든 동학교도들은 1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임 전라감사 김문현이 전주감영에 도착했을 때 軍司馬 崔永年으로부터 “금구에 운집한 東徒가 거의 만여 명이나 된다”⁵⁹⁾는 보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충청도 沔川에 유배돼 있던 金允植의 ‘沔陽行遣日記’에도 “또 금구 원평취당 수만 인은 장차 제물포로 直走하겠다고 聲言했다고 한다”⁶⁰⁾ “전라도에서는 금구 원평에서 도회하였는 데 그 괴수는 보은에 사는 黃河一·茂長집주 孫海中(孫化中の 誤記)이며, 만여 인을 거느리고 21일 도착한다는 뜻을 私通했다고 한다”⁶¹⁾며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동학교도들이 집결, 세를 과시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금구취당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주도됐으며 이들은 어떤 형태의 시위를 벌였을까. 금구취당의 주도인물은 全琫準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⁶²⁾ 《日省錄》 등의 자료에 의하면 보은취회 해산 이후 ‘湖西의 徐丙鶴, 湖南의 金鳳集·徐章玉을 該道の 감사로 하여금 營獄에 체포 구금토록 하라’는 주모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의정부로부터 발령됐는데 ‘金鳳集’은 全琫準의 가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윤식의 ‘면양행견일기’, 吳知泳의 ‘東學史’ 등이 金鳳集을 ‘全哥나 全琫準으로 고쳐 기록하고 있으며, 전봉준이 ‘金鳳均’ 등 여러 가명을 실제 사용했다는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동학교문측의 기록인 《侍天敎歷史》에서도 “법소에서는 교도의 난동을 금하였다. 이것이 전봉준이 교도들을 사사로이 빼앗아서 전라도 금구 원평에 주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금구취당을 전봉준이 거느리고 있던 집단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자료에는 금구취당이 현지에서 보인 행동들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이들은 가시적인 시위를 벌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구취당은 보은취회에 일부가 직접 참여, 일련의 급진적 행동을 보였

58) 〈討匪大略〉(《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1894년의 農民戰爭篇》，驪江出版社，1986)，395쪽.

59) 〈東徒問辨〉(《東學亂記錄》上，國史編纂委員會，1959)，155쪽.

60) 〈沔陽行遣日記〉癸巳 3월 28일조，〈續陰晴史〉上，262쪽.

61) 위의 책，癸巳 4월 5日條，264쪽.

62) 鄭昌烈，앞의 글 참조.

으며 전봉준도 참여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다.⁶³⁾ 따라서 院坪에 모여 있되 별도의 행동은 하지 않고 보은취회 세력과 聲氣를 통하면서 보은쪽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금구취당이 보은취회에서 벌인 행동들은 서병학이 선무사 어윤중에 보낸 密報에서 간접 확인되고 있다. 보은취회의 주모자였던 서병학은 보은취회의 해산을 종용하는 어윤중에게 “湖南聚黨은 얼핏 보면 우리와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 통문을 돌리고 방문을 게시(發文揭榜)한 것은 모두 그들의 소행이다. 그들의 情形은 극히 수상하니 원컨대 공께서는 자세히 살피고 조사 판단하여 그들과 우리를 혼동하지 말고 玉石을 구별해 주시오”⁶⁴⁾라고 했다. 이같은 徐의 ‘밀고’에 따르면 보은취회에서 내걸린 척왜양의 기치들은 지도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금구취당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徐의 이러한 진술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금구취당은 교조인 水雲의 伸冤을 위해 계획 실행된 종교적 성향의 보은취회를 척왜양의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집회로 변질시킨 動力으로 작용했다는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학계에서는 실제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진행돼 금구취당의 성격을 脫종교적이며 보다 투쟁적이고 정치적 지향을 지닌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금구취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금구취회가 보은취회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열렸으며 척왜양과 지방관의 탐학금지 등 강한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일련의 교조신원운동의 과정에서 전봉준이 동학지도부와는 별도의 세력을 갖추고 금구취회를 계기로 완전히 성장,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주도케 된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금구취회가 ‘전봉준에 의해 주도된 정치성 강한 집회’라는 데는 일단 동의하되 보은취회와 성격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지나치게 정치성을 부여하는 데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연구이다.

첫번째 견해에 따른 연구에서는⁶⁵⁾ ‘동학농민전쟁의 최대 지도자인 전봉준이 어떤 경로로 고부민란에서 갑자기 지도자로 출현하고 1893년 11월 사발

63) 張泳敏, 앞의 글, 257쪽.

64) 〈聚語〉(《東學亂記錄》上), 121~122쪽;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69~70쪽.

65)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1), 44~82쪽.

통문 서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금구취당'이라는 열쇠로 풀어 놓고 있다. 즉 김봉균이라는 가명으로 전봉준이 주도한 금구취당은 이미 1893년 2월 중순에서 2월 말 사이 서울서 척왜양방문 계시운동(이른바 패서사건)을 전개했고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전주에서 비슷한 운동(3월 1일경 전라감영문에 붙여진 榜文)을 벌였으며 3월 7일에는 서울에서 외국 선교사, 상인의 축출과 지방관리의 압제와 탐학 제거를 위한 일대 정치공세를 벌이자고 선동하는 등 강도높은 척왜양 반압제운동을 전개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응집돼 늦어도 3월 초에는 내부적인 규율을 갖춘 집단으로 성립되었고 적어도 3월 중순에는 금구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가질만큼 완강한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견해이다.⁶⁶⁾ 이처럼 전봉준을 주축으로 한 금구취당은 이른바 북접지도부와 노선을 달리하면서 투쟁의식을 강화해 동학농민전쟁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 나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증은 타월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나 신진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몇가지 반론에 부딪혀 있다. 즉, 금구취회가 비록 독자적으로 會集하고 척왜양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강하게 내세웠다고는 하나 공주-삼례-광화문-보은으로 이어지는 동학교단의 신원운동과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벌어진 패서사건을 금구취당의 동학교도들이 주도했고 금구취당의 總代 20명이 서울에서 운동을 벌이다 포도청에 구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의 오독이거나 지나친 추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구취당이 남접과 합세해 보은취회를 좀더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 보은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려 했으나 취회가 해산해 버리자 선발대 천여 명이 忠州로 방향을 돌려 上京하려 했다'는 해석은 명백히 사료를 오독한 것이라는 반박을 받고 있다.⁶⁷⁾ 4월 2일 보은취회가 해산하면서 '사잇길로 원평에서 충주로 간 자가 천여 명'이라는 한 報恩 將吏의 보고서가 전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별도 계획을 실행하려고 상경하려던 금구취당의 선발대가 아니라 보은취회에 참여했다가 충주쪽으로 돌

66) 위의 글, 82쪽.

67) 張泳敏, 앞의 글, 253쪽.

아가던 보통의 동학교도들이었다는 것, 여기서 나오는 원평은 보통의 전라도 금구 원평이 아니라 현재 ‘忠北 報恩郡 山外面 院坪’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금구에서 보은과 별도의 취회가 이뤄진 것은 단순히 참여 교도들의 식량조달의 한계 때문에 집회를 분산시킨 것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보은·금구취회는 동일한 목적 아래 분산적으로 열렸던 신원집회라며 금구취당에 대한 별도의 의미 부여를 차단하고 있다.⁶⁸⁾

이상과 같이 금구취당은 동학교도들이 최대 규모의 세를 과시한 보은취회의 시기에 별도로 열리고 있었다는 점과 이를 전봉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금구취회에 관한 배경과 올바른 성격 규정은 동학농민전쟁의 전반을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이다. 1893~1894년 사건 전반에 걸친 안타까움이긴 하나 특히 금구취회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음은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朴孟洙〉

68) 표영삼, 〈보은 장내리 척왜양창의〉(《新人間》 505, 1992. 5).